
플로리디의 정보철학과 포스트휴머니즘*

신상규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
- II. 플로리디의 정보철학과 구성주의
- III. 인포스피어와 인포그
- IV. 존재중심주의
- V.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
- VI. 행위자 개념의 확장: 인공행위자의 가능성
- VII. 호모포이에티쿠스
- VIII. 간단한 결어

국문초록

본 논문은 플로리디의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를 중심으로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의 전개를 위한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찾아내고 해명하려는 논문이다. 플로리디는 스스로 포스트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철학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보 철학에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정신/마음, 생명/기계, 인간/비인간, 인공/자연 등의 전통적인 이분적 구분의 경계를 해체하면서 인간과 세계에 관한 탈인간중심주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 논문은 인포스피어, 인포그와 같은 핵심 개념에 대한 해명, 윤리에 대한 존재중심주의 및 피동자 중심의 접근, 행위자 개념에 대한 탈인간중심주의적 분석에서 그의 정보윤리가 포스트휴머니즘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 인포스피어, 인포그, 존재중심주의,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 인공적 도덕 행위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9796)

본 논문은 플로리디의 정보철학과 정보윤리의 핵심적인 주장을 살펴보면서, 그가 주장하는 많은 내용이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의 전개를 위한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함을 보이려는 시도이다. 물론 플로리디는 스스로 포스트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철학자는 아니다. 트랜스휴머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견해와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는 때때로 자신의 입장이 포스트휴머니즘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보 철학에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논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먼저 탈-휴머니즘, 탈-인간중심주의, 탈-이원론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의 지향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정보철학에 대한 플로리디의 기획을 간략히 소개하고, 인포스피어와 인포그의 개념, 존재중심주의 및 피동자 중심의 정보윤리, 행위자 개념에 대한 탈인간중심주의적 분석 등을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그의 정보철학이 지닌 포스트휴머니즘적인 면모를 살필 것이다.

1.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

오늘날 포스트휴먼 논의의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이나 정보기술, 생명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 즉 우리의 삶의 형태(form of life)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흔히 파괴적(disruptive) 기술로 불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의 등장이 우리가 인간이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전통적인 범주적 구분들의 해체나 와해에 대해서 갖는 함축이다. 과학기술이 탄생시키는 ‘포스트휴먼 현상’은 인간/비인간, 생명/기계, 마음/물질, 자연/인공, 주체/객체 등의 이원적 범주들을 가로지르며 그러한 구분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다.¹⁾

프란체스카 페란도(Francesca Ferrando)는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탈-휴머니즘, 탈-인간중심주의, 탈-이원론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탈-휴머니즘은 인간 경험의 다수성에 대한 이해를 함축한다. 인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즉 인간(들)으로 파악된다. 그럼으로써 인간에 대한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휴머니즘 전통을 약화시킨다. 탈-인간중심주의는 비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탈중심화를 말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중심이 위계적 구도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대다수의 역사적 논의에서 존재론적 특권을 당연시해 왔음을 시인한다. 탈-이원론은 이원론이 정체성을 정의하는 공고한 방식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닫힌 자아 개념에 기초하고 ‘우리’/‘그들’, ‘친구’/‘적’, ‘문명’/‘야만’ 등의 상징적 이분법에서 실현되어 왔다는 자각에 의존한다.²⁾

탈-휴머니즘은 인간의 이상적 표준이나 척도로서의 ‘인간(Man)’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을 호명할 때 이때의 인간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서구 근대의 휴머니즘은 분명 개인의 자유나 보편적 인권 이념의 확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유럽 중심의 보편주의로 세계모니화하여 ‘인간’의 표준으로 남성-백인-서구-중산계급-이성애자-비장애인을 배치하고, 여성, 노예, 다른 인종 집단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여 차별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탈근대주의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장애학 등 다양한 담론이 이러한 위계와 배제를 비판해 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러한 논의를 계승하여, ‘인간’은 역사적 개념이며, ‘우리 인간’은 결코 통일적이고 자명한 범주가 아님을 천명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그 차이 혹은 다른 젠더, 인종, 민족, 사회, 개인의 차원을 관통하여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내재적 특성임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옹호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두 번째 요소는 종간 위계 및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하는 탈-인간중심주의이다. 휴머니즘 시대에 ‘인간’은 정신/물질, 생명/기계,

1)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신상규(2019), 신상규(2021)를 참조하라.

2) 프란체스카 페란도, (이지선 역),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아카넷, 2021, 121쪽.

자연/문화(인공)와 같은 이원론적 구분을 토대로, 인간 아닌 것(non-human being) 혹은 비인간(inhuman)과의 대비를 통해 정의되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연, 생물학적, 진화론적 동물의 기원을 벗어 나거나 억압할 뿐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물질성과의 결합이나 신체성(embodiment)을 모두 초월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³⁾

여기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며 세계의 중심에 있는 특권적인 존재로 설정되고, 다른 생명체와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처분 가능한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러한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에게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자연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부정한다.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인간은 환경과 기술에 얽혀 있으면서 다른 형태의 생명과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공진화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생명 및 기술적 존재와 연결되어 상호작용과 교차의 상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관계 체계(relational system)의 일부인 것이다.

탈-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의 지향이 무엇인지는 명백해 보인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자본주의의 경제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탈-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의 수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탈-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진공 속의 추상이 아니라 심화된 자본주의라는 현실의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포스트휴먼 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가속화와 여섯 번째 대 멸종으로 향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가속화라는 두 힘 사이에서의 균형 잡기라고 주장한다.⁴⁾ 그런 점에

3) Alan Smart and Josephine Smart, *Posthumanism: Anthropological Insight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

4) 로지 브라이도티, (김재희, 송은주 역), 『포스트휴먼 지식』, 아카넷, 2022. [Posthuman

서 포스트휴먼 담론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규범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지구상의 비인간 존재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 윤리와 정치적 실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 담론의 성격을 띤다.

실천적 지향이 분명해 보이는 탈-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탈-이원론의 기여는 좀 더 미묘하다. 우리가 근대로부터 계승한 인간/비인간, 생명/기계, 마음/물질, 자연/인공, 주체/객체와 같은 이원적 구분은 휴머니즘이나 인간중심주의를 떠받치는 이론적 장치인 동시에,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치나 규범 판단의 근거이기도 하다. 페란도는 탈-이원론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이원론이 반드시 위계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 사상의 역사에서 한 가치 체계에 속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때에 한 측면에는 긍정적인 위치가 다른 한 측면에는 부정적인 위치가 부여되어 왔다.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에 의해 해체되는 이원론은 엄격하고 완고하고 절대적인 이원론으로, 유동적이고 변화하며 내부 변화하는 도(道)에서 추구하는 형태의 이원성이 아니다. [...] 탈 이원론은 인간의 최종적인 해체에서 필연적인 단계다.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인종 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나아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것이다. 엄격한 형태의 이원론적 사고는 위계적 사회·정치 구조를 낳는데 이러한 사고 방식에 대면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로봇을 새로운 '타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출현할 것이다.”⁵⁾

우리의 일상과 행위를 규제하는 많은 실천과 규범적 원칙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물려받은 이원적 구분과 맞물려 작동한다. 가령 인간의 존엄성 및 도덕, 윤리, 책임, 권리 등의 규범적 개념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대부분 '자기 결정권을 갖는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상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개

Knowledge, Wiley, 2019)

5) 페란도, 앞의 책, 131-132쪽.

념적 구분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러한 구분에 입각한 판단이나 규범들도 상당 부분 유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근대적 인간관이나 ‘인간’ 개념, 혹은 그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세계관에 대해 도전하며,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 이후의 시대에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과제는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경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위계를 해체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다양한 타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혼종적 인간/비인간-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포함하여, 타인 혹은 비인간-타자와 관계 맺기, 생태적 환경으로서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존의 이분법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반성이며, ‘인간’, ‘기계’, ‘생명’ 등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언어 문법의 발명이다.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장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신유물론, 객체지향 존재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각각의 이론이 탈-휴머니즘, 탈-인간중심주의, 탈-이원론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포스트-’의 주장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준다. 굳이 말하자면, 포스트휴머니즘은 하나의 통일된 교설이라기보다, 우리의 일상에 스며있는 근대의 휴머니즘이나 인간중심주의의 폐해를 비판하고, 근대적 이분법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더 성숙된 “계몽된”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해석의 관점이나 이해의 태도에 가깝다. 이는 역으로 세 가지의 ‘포스트-’를 입론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여전히 열려있는 문제이며, 이론적 측면에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음을 시사한다.

플로리디의 정보철학 혹은 정보윤리를 포스트휴머니즘과 연결시키려는 본 논문의 시도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한다. 플로리디의 철학에는 특히

탈-인간중심주의나 탈-이원론에 해당하는 여러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개념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간이 거주하는 기술적 생태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 인포그로서의 인간, 존재중심주의, 피동자 중심의 정보윤리, 행위자 개념에 대한 탈인간 중심주의적 분석 등을 중심으로 그러한 면모를 살펴볼 것이다.

II. 플로리디의 정보철학과 구성주의

먼저 플로리디가 말하는 정보철학의 성격과 기획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자. 플로리디는 정보철학의 과제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정보의 동역학, 활용 및 과학을 포함하여, 정보의 개념적 본성과 기본 원칙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일이다. 둘째는 정보이론 및 계산적 방법론의 발전된 성과들을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적용하여 오랜 철학적 문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재개념화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철학은 그 자체로 고유한 토픽을 다루는 자율적인 분야인 동시에,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철학적 문제에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면서, 정보 세계와 정보사회의 개념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이론을 제공한다.⁶⁾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두 번째 부분, 정보철학이 정보사회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에 대하여 개념적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세계관을 재개념화한다는 부분이다. 플로리디는 “정보”를 철학의 근본 개념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정보철학’을 새로운 “제일철학(*philosophia prima*)”으로 선언한다.⁷⁾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사물의 근본 원리를 다루는 학문인 형이상학 혹은 존재론이 차

6) L. Floridi, “What is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Metaphilosophy*, Vol. 33, Nos. 1/2, 2002, p.124.

7) 위의 글, p.124

지했던 권좌를 이제 정보철학이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플로리디의 정보철학은 단지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식론, 윤리학, 심지어 정치철학까지도 포괄하는 통합적 체계로서의 궁극적인 제일철학을 지향한다.

플로리디의 이러한 기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에 의해 추동되는, 순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는 심대한 문화적 혁명의 시작 지점에 있다. 지구적 정보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대부분의 도전은 정보와 통신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 교육, 비즈니스, 오락, 정치, 문화, 사회 그리고 개인적 삶이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데이터의 기록, 전송, 처리와 관련된 기술에 의해 변형되고 있다. 플로리디의 용어를 빌리자면 개인, 사회, 국가의 유지, 발전, 번영이 정보의 생성, 처리, 관리 및 활용 방식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소위 “하이퍼히스토리”의 시대가 된 것이다.⁸⁾ ICT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빠르게도 심층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환경적, 인류학적, 사회적, 해석학적 힘이 되었다. 이것들은 우리의 지적, 물리적 환경을 형성하고 조각하며, 자기 이해를 변화시키고, 서로가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⁹⁾

결국 플로리디가 말하는 정보철학의 목표는 기존의 철학을 비판하고 오늘날의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혁명의 도래와 그것이 야기하는 급진적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맞게 개념화된 우리 시대의 철학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철학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¹⁰⁾ 비록 정보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모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철

8) L. Floridi, *The Fourth Revolution*, Oxford, 2014, 1장.

9) 위의 책, p. vi.

10) L. Floridi, *The Logic of Information*, Oxford, 2019. p. 212

학의 역할에 대한 플로리디의 이러한 인식은 상당 부분 포스트휴머니즘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플로리디는 <정보철학>의 서문에서 자신의 책은 탈-분석/대륙 철학의 구분이란 관점에서 쓰인 독일식 책이며,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칸트적이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마치 칸트가 경험론과 합리론을 넘어선 종합을 시도했던 것처럼, 분석철학과 프랑스 중심의 대륙 철학이라는 두 전통의 철학을 발전적으로 매개하려는 시도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플로리디의 글쓰기나 논증하는 방식은 전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논리나 언어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철학의 그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관심을 갖는 많은 문제들은 대륙철학의 그것과 상당 부분 겹치는 듯이 보인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이론적 원천 중 많은 부분을 푸코나 데리다와 같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차지한다. 존재중심주의에 대한 플로리디의 제안은 '주체의 문제'와 같은 프랑스 철학(혹은 포스트휴머니즘)이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 '정보'의 언어를 사용하여 훨씬 건조하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로도 이해될 수 있다.

플로리디의 칸트적 면모는 '지식은 디자인이며 철학은 개념 디자인 (conceptual design)의 학문'이란 그의 구성주의적 견해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개념 디자인'이란 표현은 카르납이 사용했던 개념적 공학(conceptual engineering)이란 표현을 그가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개념 디자인'이란 말로, 나는 우리의 의미적 인공물을 설명(더 잘 해명)할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인포스피어에 필요한 인공물을 설계하거나 전용(re-purpose)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구성주의가 아닌) 철학을 지칭한다. ... 디자인은 발견도 발명도 아니며, 단순한 손질, 고치기 또는 개선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특정 목표에 비추어 인공물을 만들기 위해 지능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요구 사항을 구현하고 제약적인 어포던스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개념적 디자인으로서의 철학은, 집이 재현이 아니라 건축자재에 의해 제약을 받고 또 그것이 유도하는 특정한 건축 설계의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인공물을 마음과 실

재에 공-의존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실재론적 철학이다.¹¹⁾

우리는 앞서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요 목표가 포스트휴먼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문법의 발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플로리다가 말하는 개념 디자인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정보혁명의 도래와 그것이 야기하는 급진적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맞게 개념화된 우리 시대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철학의 근본 개념이나 가정들은 역사시대 혹은 산업 시대의 사고방식 등을 통해 고착된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 시대가 놓인 곤경을 나름의 방식으로 의미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플로리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에 따르면, 정보혁명으로 인한 하이퍼히스토리 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과 관점에 의해 포착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플로리다는 정보철학이 철학의 그러한 갭스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철학은 정보사회의 개념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인포스피어)의 구성(에코포이에시스)을 안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보철학이 현실이 요구하는 철학적 이해의 경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는 혁신적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를 위한 우리 시대의 철학이 바로 정보철학이라는 것이다.¹²⁾

이러한 플로리다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장치가 추상화의 수준(level of abstraction)¹³⁾이다. 플로리다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그 자

11) L.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p.2

12) L. Floridi, *The Fourth Revolution*, Oxford, 2014, pp. viii~ix.

13) 추상화의 수준(LoA)는 형식적으로 “유한하지만 공집합이 아닌 관찰가능자(observables)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관찰가능자는 우리가 어떤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구축할 때, 그 이론을 구성하는 일종의 빌딩 블록에 해당한다. 여기서 ‘관찰가능’이란 표현은 ‘지각 가능한 특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간접적 방식을 포함하여 ‘측정 가능한’ 혹은 ‘식별/확인가능한’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

체(칸트의 본체계)에 접근할 수 없으며, 언제나 특정한 (개념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재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세계는 제약적 어포던스(affordance)로 이해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우리 인간은 의미론적 엔진이 되어 이러한 데이터를 의미론적 정보로 변환한다. 의미론적 정보는 진리를 판단할 인식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플로리디는 세계에 대한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초월적 접근을 물려받아서, 특정 체계의 분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추상화의 수준(Level of Abstraction)을 제시한다.

무조건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분석이 수행되는 추상화 수준, 즉 특정 목적을 위해 질문이 제기되고 답이 제시되는 어떤 수준(의 정확화)과도 독립적으로 한 시스템(칸트에게는 세계 그 자체, 그러나 더 제한된 영역일 수도 있음)을 분석하려는 자연스럽지만 심오한 오류를 저지르는 노력과 동일하다.¹⁴⁾

그에 따르면, 어떤 대상(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언제나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며, 이를 반영하는 질문과 함께 그에 걸맞은 답이 주어지게 된다. 추상화의 수준은 바로 이러한 관찰자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하면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세계(대상)로부터 주어지는 제약적 어포던스로서의 데이터는 다음

리는 하나의 LoA를 구성하는 일련의 관찰가능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된다. “관찰가능자는 해석된 유형화된 변항(an interpreted typed variable)이다.” 즉 이는 유형을 나타내는 변항인 동시에, 거기에는 현재 고려의 대상인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표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유형화된 변항은 어떤 주어진 유형적 특성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값 중의 하나를 취할 수 있는 변항이며, 형식적으로는 그 값들의 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적 대상이다. 그리고 그 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취하는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모든 대상이나 과정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 주체 혹은 행위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특정한 추상화의 수준에서만 기술될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인간 행위자 A를 기술하면서,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화학적 성분과 관련된 LoA를 통하여 접근한다면, 행위자 A는 70%의 물과 30%의 다른 물질과의 결합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Floridi,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2011, 3장을 참조하라.

14) L. Floridi,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Oxford, 2011, p.59.

과 같이 정의된다.

Dd) 데이터 =def. x가 y와 구별되는데, 여기서 x와 y는 두 개의 해석되지 않은 변항들이고 변역(domain)과 ‘구별됨’ 관계는 추가적인 해석에 열려있다.¹⁵⁾

플로리디에 따르면, 데이터란 “차이를 만드는 구별”이며 궁극적으로 ‘균일성의 결여(lack of uniformity)’로서, 일종의 관계적 대상(entity)이다. 여기서 데이터가 관계적이라는 말은 추상화의 수준과 독립적으로 그것에 접근하거나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인지적 처리나 해석도 가해지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데이터로서, 실제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균일성의 결여를 플로리디는 디도메나(dedomena)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의 현전은 직접 경험되지 않으며, 경험을 통해 그것의 현존이 추론되고 요구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디도메나는 정보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계 속에 있어야만 하는 원초적인 조건인 셈이다.¹⁶⁾

이러한 데이터는 그것을 처리하는 정보적 행위자로 하여금 특성의 구성을 허용하거나,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저항하거나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제약적 어포던스로 작용한다. 그런데 플로리디의 구성주의는 언제나 인간의 책임에 부리를 두고 있다. 정보적인 인식 주체는 수동적인 정보수신자가 아니며, 데이터는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입력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제약적 어포던스로 이해되는 데이터는 “관련 질문을 기다리는 답변”이며, 질문을 구성하는 것은 정보적인 인식주체이며, 그러한 구성에는 책임이 동반한다.

15) 루치아노 플로리디, 석기용 역, 『정보철학입문』, 펠로소픽, 2022, p.49

16) 데이터는 디도메나 외에, ‘시스템의 두 물리적 상태나 신호(signal) 사이, 혹은 그것들에 대한 지각 사이에 존재하는 균일성의 결여’나 ‘언어적 체계 안에서 두 부호(symbol) 사이에 존재하는 균일성의 결여’라는 형태를 취한다. 디도메나는 신호로서의 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시 부호의 코딩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철학입문』, 50-51쪽 참조.

그러나 데이터가 정보나 지식의 소스(source)가 아니라, 정보 그리고 그에 따른 지식의 자원(resource; 즉, 에이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입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식을 일종의 세계에 대한 그림으로 해석하는 모방 이론에 반하는 구성주의적 논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라. [...] 경험적이든 개념적이든, 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한 주어진 LoA 수준에서 특정 범위의 정보 구성만을 가능하게 하며, 모든 구성이 똑같이 쉽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¹⁷⁾

추상화의 수준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세계 혹은 실재에 대한 재현(표상)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모형의 구성에 해당한다. 여기서 모형(모델)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그림과 같은 의미의 표상이 아니라, 데이터의 정교화(elaboration)로 이해된 해석이다. 그 결과, 진리나 지식과 같은 의미론적/인식적 개념들의 적용도 궁극적인 실재가 아니라 실재에 대한 우리의 모형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발견되거나 발명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인식 주체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이는 실재론도 반실재론도 아닌 정보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이다.”¹⁸⁾

III. 인포스피어와 인포그

디지털 정보기술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를 다루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새롭게 규정한다. 플로리디는 정보혁명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용하고 덜 선정적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에서의 더 중요하고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이해라는 측면에

17) L. Floridi,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Oxford, 2011, p.77.

18) 위의 책, p.78.

서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의 뒤를 이어 일어나고 있는 ‘네 번째 혁명’이다.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간중심주의에 균열을 내고, 인간 주체를 점점 탈중심화하는 데 기여했다. 플로리다가 말하는 4차 혁명도 인간의 탈중심화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우리 자신을 정보적 유기체로서의 인포그(inforg)로 이해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인포그는 ‘인포스피어(inforsphere)’라고 부르는 정보적 환경에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정보적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면모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인포스피어는 내가 몇 년 전에 만든 신조어이다 [...]. 이는 모든 정보 존재자와 그 속성, 상호 작용, 프로세스 및 상호 관계로 구성된 전체 정보 환경을 지시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하위 영역 중 하나에 불과)에 비교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환경이다. 이는 오프라인 및 아날로그 정보 공간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재-존재화는 회사, 기계 또는 인공물 등의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 구성 또는 구조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재적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형태의 리엔지니어링을 지칭하기 위해 내가 최근에 도입한 또 다른 신조어이다 [...]. 앞의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이제 나의 기본 주장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디지털 ICT는 인포스피어의 본성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재-존재화하고 있으며, 기술에 관한 한 여기에 우리 정보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가장 심오한 변화와 도전적인 문제의 원천이 있다.¹⁹⁾

인포스피어는 생물권(biosphere)이란 표현을 변형한 신조어이다. 생물권은 지구상의 생물과 생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토양, 공기, 물 등의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와 유사하게 인포스피어는 정보적 존재자들과 그것들이 거주하는 정보적 환경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과 그 속성, 상호작용, 과정, 상호관계 등에 의해

19) L. Floridi, “A Look into the Future Impact of ICT on Our Lives”, *The Information Society*, 23 (1), 2007, p.61

구성되는 공간으로서의 정보 환경”으로 정의된다.²⁰⁾ 플로리디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라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급격하게 인포스피어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정보 행위자들과 상호 간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 유기체인 인포그(Inforg)이다.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서 플로리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생활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점점 더 정보적으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 즉,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공간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구글이나 클라우드, SNS 공간에도 존재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그에 따라 여기(아날로그, 탄소 기반, 오프라인)와 저기(디지털, 실리콘 기반, 온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가령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네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배달앱이나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험을 떠올려 보자. 과거 우리는 컴퓨터의 바깥에 있으면서 키보드나 스크린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그것에 접속하였으며, 그 상호작용은 신체적인 것이기 보다 의미론적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포스피어라고 부르는 거대한 컴퓨터

20) L. Floridi, *The Fourth Revolution*, Oxford, 2014, p.40. 인포스피어에 대한 위의 정의는, 사물의 상태에 대한 정적인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적 존재자가 인포스피어를 동적으로 구성하는지, 어떻게 환경이 구조화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동적인 설명을 함축한다. 이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포이에티쿠스의 개념을 통해 더 해명될 것이다.

안으로 들어와 있으며, 인포스피어와의 상호작용 또한 터치 스크린, 음성 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한 신체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인터페이스가 점차 눈에 띄지 않게 되면서 디지털-온라인 세상이 아날로그-오프라인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융합되고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지능형 환경(Ambient Intelligence)’, ‘사물인터넷’ 등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기술들이다.

플로리다가 말하는 인간 이해의 4차 혁명이란 인간의 정체성을 정보적 본성을 갖는 정보 유기체로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가 비록 유일한 의미론적 엔진으로서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 정보적 본성을 똑똑한 인공물이나 환경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ICT는 현실(실재)을 만들고 재제작하는 세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재규정 혹은 재존재화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ICT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그것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커뮤니케이션, 계산적 자원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²¹⁾

인포그로서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기술은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해되었다. 즉, 기술은 인간(주체)이 설정한 어떤 목적(문화)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객체)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재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 정체성의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와 객체(혹은 도구),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는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인간 주체가 세계 혹은 실재에 대한 모든 설명의 궁극적인 기초 혹은 토대가 된다는 생각과 관련되

21) 루치아노 플로리다, 석기용 역, 『정보철학입문』, 필로소픽, 2022, p.22 (번역 필자 수정)

어 있다. 그리고 인간 주체가 아닌 다른 것들은 주체 앞에 있는 객체로 위치 지워진 채, 인간에 의해 설명되고 조작되고 폐기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플로리디에 따르면, “많은 측면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자라기보다 상호연결된 정보적 유기체, 즉 인포그로서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 즉 인포스피어를 공유한다.”²²⁾ 이는 객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주체와 주체의 주도권을 단지 견디며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인 객체라는 이분법을 넘어선다. 인간은 더 이상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며,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다. 대상(객체)은 이제 더 이상 주체의 ‘반영된 이해관계’의 운반자로 인식되지 않는다.²³⁾

주체와 객체 모두 정보적인 추상화의 수준에서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 혹은 정보의 집합으로 기술되고 경험될 수 있다.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며, 처리자(processor)와 피처리자(processed) 사이에는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 또한 똑같이 정보적이며, 이는 모두 읽기(수신, 접근, 저장), 쓰기(생성/변화) 및 실행(처리)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²⁴⁾ 플로리디는 인간을 세계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견고한 인간중심주의의 탈피를 시도한다.

IV. 존재중심주의

추상화의 방법은 어떤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윤리학에서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윤리학과 관련하여,

22) 위의 책, p.24

23) M. Durante, *Ethics, Law and the Politics of Information: A Guide to the Philosophy of Luciano Floridi*, Springer, 2017, pp.106-107.

24) L.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p.41

가령 남성중심적, 인간중심적, 생명중심적, 존재중심적 LoA를 취할 수 있다. 플로리디는 실재(reality)를 정보적으로 해석하는 정보적 LoA에 입각한 존재중심적(ontocentric) 윤리학으로서의 정보윤리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정보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윤리는 생명이나 살아있는 것에 경도되어 있으며, 생태근본주의는 자연과 구분되는 기술이나 인공물에 대해 편향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도덕적 존재의 범위를 살아있는 것이나 자연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심이나 윤리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하다.

정보윤리는 그 적절한 LoA로 정보적인 추상화의 수준을 채택한다. 정보적 LoA에서, 대상(존재자)은 데이터의 클러스터(묶음) 즉 정보적 대상으로 기술된다. 정보적 대상은 적절한 데이터 구조 및 자극에 반응하는 절차의 집합을 포함하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분리된 정보 패키지이다. 데이터의 구조는 그 대상의 본성, 즉 대상의 상태 및 고유한 정체성이나 속성을 구성한다. 자극에 반응하는 절차의 집합은 다른 대상으로부터 수신하는 메시지나 스스로의 내부 변화와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일련의 조작적 절차나 함수의 집합이며, 이는 해당 대상이 변화나 자극에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정의한다.²⁵⁾

정보적 LoA에 입각한 정보윤리는 존재(being)와 관련된 모든 측면과 관련된 도덕적으로 중요한 현상의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담론을 확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정보윤리는 인간이나 생명 등의 다른 수준의 분석이 적절하지 않을 때, 따라서 그것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안내를 행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존재 중심적 정보윤리에 따르면, 생명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존재이며, 고통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엔트로피이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그런 점에서 존재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것의 실존 및 본질을 향상시키고 풍부하게 할 변성의 권리를 갖는다.

25) L. Floridi, “Information Ethics: Its Nature and Scope”, 2008, p.46.

IE는 모든 정보 존재자가 존재(being)의 표현인 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성하는 모든 기본 속성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그 실존의 양상과 본질에 의해 구성되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존엄성은 원초적으로(prima facie)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상호 작용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도덕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처음에만 그리고 기각가능한(overridable) 방식으로만 적용되더라도, 윤리적 결정과 행동의 제약과 지침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평등 원칙은 [...] 모든 형태의 실재는, ... ,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처음의 기각가능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이러한 사실은 행위자가 어떤 윤리적 판단이나 결정을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존재의 내재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 존재의 궁핍화(impovertishment)를 의미하는 엔트로피의 증가이다. 이는 정보 질서나 구조의 붕괴를 통한 정보적 대상의 파괴나 타락을 의미한다. 도덕적 행위자의 행동은 인포스피어의 성장에 대한 기여, 즉 엔트로피 수준의 증가 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우리 인간도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정보적 존재자이며,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인포스피어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존재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정보적 존재와 인포스피어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IE가 던지는 도덕적 질문이다. 우리는 존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최소주의의 접근 방식에 의해 해답이 제공된다는 것을 보았다. ... 정보 프로세스의 승인 또는 비승인은 해당 정보 프로세스가 관련된 정보 존재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일반적으로는 전체 인포스피어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해당 정보 존재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요구를 존중하는 데 얼마나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 따라서 인포스피어를 풍요롭게 하거나 빈곤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²⁷⁾

26) L.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p.69.

이러한 플로리디의 정보윤리에서 우리가 탈인간중심주의, 탈이원론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이며, 이는 또한 정보윤리의 핵심 논제이기도 하다.

첫 번째 논제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비록 아주 미미하고 각각될 수 있지만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그것들은 어느 정도(어찌면 똑같이 미미할 수 있는)의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 피동자의 자격이 있다고 진술한다. 두 번째 논제는 인공적인 정보 존재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책무성을 갖는 (accountable)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진술한다.²⁸⁾

V.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

플로리디는 우선 행위자(agent)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의 구조를 전복하는, 매우 근본적인 수준의 피동자(patient) 중심 윤리학을 제안한다. 기존의 윤리학은 발신자/행위자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이를 수신자/피동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선함의 열쇠가 배려, 존경, 관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은 윤리를 행위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도덕적 이해관계를 가진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할 존재를 단지 '인간'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인간 존재들로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27) 위의 책, 70쪽. 플로리디는 도덕적 행위자가 따라야 할 네 가지 기본 도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0) 인포스피어에서 엔트로피가 야기되지 않아야 한다.(발생하지 않아야한다)(null law)
- 1) 인포스피어에서 엔트로피는 방지되어야 한다.
- 2) 인포스피어에서 엔트로피는 제거되어야 한다
- 3) 전체 인포스피어뿐 아니라 정보 존재의 번영은 그들의 복지를 보전, 육성 및 풍부하게 함으로써 촉진되어야 한다.

28) 위의 책, 110쪽

대표적인 행위자 중심 윤리학의 하나인 칸트의 윤리학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responsibility)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외연은 인격(person)적인 존재로 한정된다. 인격체로서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 의식, 자유의지와 같이 책임의 귀속에 필요해 보이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

목적의 왕국에서 모든 것은 가치(값)를 매길 수 있거나 혹은 존엄성을 갖는다.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그것과 동등한 것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반면에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 동등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 오직 목적일 수 있는 것만이 상대적인 가치 즉 가격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즉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²⁹⁾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인 가치이다. 이에 비해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그러한 외부적인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누리는 가치로서,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이다.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며, 사실상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러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칸트에서 존엄성은 선의지를 갖고 도덕적 표준을 제정하는 자율적 행위자만이 도덕적 선함의 원천일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입법자로서의 행위자는 사실상 인간밖에 없으므로,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중심주의(혹은 인간예외주의)라는 근대적 이념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플로리디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의 관점을 윤리 담론의 기반으로 채택한다. 또한 플로리

29) 임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기』, 책세상, 2002. p.93 (번역 필자 수정)

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에서 분리하여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시킨다. 이제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물론 칸트의 경우와는 달리, 이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아니며, 상황에 따라 기각 가능한(overridable) 상대적 가치이다. 플로리디가 말하는 존재 평등 원칙은 모든 정보적 존재자가 동등한 수준의 존중을 담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정보 존재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받는 존중의 수준은 그 존재가 누리는 정보적 지위에 따라 변화한다. 어떤 존재의 정보적 지위는 그것이 정보 대상으로서 어떤 속성을 갖는가로 파악되는가에 의존한다. 즉 존재자들은 채택된 정보적 LoA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그에 걸맞은 다양한 수준의 도덕적 관련성, 가치 및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만약 인간이 바위보다 도덕적으로 더 관련 있고 가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정보적 관점에서 인간이 바위보다 도덕과 관련된 가치적 속성을 훨씬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준의 정보적 LoA를 취하건 간에, 그리고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아무리 빈곤하더라도, 정보적 대상이라면 최소한의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플로리디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는 행위자/피동자를 아우르는 모두의 복지를 모두 고려할 때,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LoA의 분석에 입각하여 기각될 수 있다.

어떤 존재자의 최소 내재적 가치는 더 이상 축소될 수 없고,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존재자가 보편적으로 반드시 공유해야 하며,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하다는 의미에서 비교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더 낮은 LoA에서의 도덕적 가치의 정도를 고려할 때 기각될 수 있다.³⁰⁾

30) L.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122쪽 (필자 강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객체의 자리에 배치되었던 비인간 존재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운반자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도덕적 피동자로서 비록 상대적일지라도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가치는 더 이상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우연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이다.

피동자를 도덕적 담론의 관점과 평가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또한 도덕성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제 도덕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는 없어도) 피동자의 관점에서 해당된다. 마시모 두란테(Massimo Durante)는 이러한 전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정의의 가능성은 누군가 나에게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때 시작한다. 레비나스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디에서도 질문하기가 중심이다. 하지만, 질문을 제기하는 쪽은 판단하는 입법자로 이해되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의 피동자이다. 도덕적 주체(subject)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행위자 즉 모든 것의 도덕적 입법자로 인식될 필요가 없으며, 고발당하고 설명을 요구받은 논쟁의 주체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철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담론의 토대는 더 이상 행위자로 이해되는 주체의 자발성이 아니라 피동자의 수용성 또는 달리 말하면 취약성에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그 자체가, 레비나스나 버틀러 ... 와 같은 다른 철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행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기된 피동자의 요구의 근원(origin)이다.³¹⁾

타자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에게만 한정시킨 레비나스와 달리, 플로리디는 그러한 요구의 주체가 반드시 인간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도덕적 주체의 집합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으로 제한하는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의 집합인

31) M. Durante, 앞의 책, p.117

비-인간에게로 확장한다. 피동자 중심의 관점에서, 도덕성은 피동자의 설명 요구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 요구는 항상 피동자 자신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누군가가 대신 말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나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피동자에게 응답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내가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촉구한다. 내가 피동자에게 노출되는 이러한 책임 관계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내가 피동자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요청받는 곳에서 역설적이게도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대체할 수 없는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³²⁾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피동자의 요청이다. 자율성은 더 이상 자기 결정이나 자기 부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 도덕적 긴장에 근거한다. 도덕적 주체성은 언제나 피동자의 부름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여기서 책임을 지는 것도 더 이상 행위자의 주관적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피동자의 내재적 가치와 객관적 지위에 근거한다.

피동자 중심 윤리의 의의는 자연 세계에서 인간의 검증되지 않은 특권적 위치를 문제 삼고 윤리학의 인간중심주의적 전통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를 단지 다른 ‘인간’들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로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것이다. 정보적 추상화의 수준은 도덕적 주장의 중심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주체)의 집합을 최대한 확장하는 LoA로서, “그것을 넘어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최저의) 임계값”을 나타낸다.³³⁾ 말하자면, 이는 가능한 한 비인간 중심적이고 중립적인 대상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충족해야 할 최소 자격 요건을 최대한으로 낮춘 윤

32) 위의 책, p.118

33) L.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p.109

리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플로리디의 존재중심주의에 따르면, 존재의 어떤 사례도 정보적 대상으로서의 도덕적 주체이며, 이는 윤리의 최소의, 보편적인, 포괄적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도덕적 주체가 스스로를 존재의 집에 온 손님으로 여기는 세상이라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³⁴⁾

VI. 행위자 개념의 확장: 인공행위자의 가능성

존재중심주의 채택의 일차적 귀결은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도덕적 피동자 집합의 확장이다. 이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도덕적 존재의 범위는 인포스피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보체계로 이해 가능한 모든 존재를 포괄하도록 확장된다. 그런데 플로리디는 피동자의 외연뿐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의 외연도 확장하려고 한다. 여기서 플로리디가 주목하는 것은 지능적인 인공 도덕 행위자의 가능성이다. 그는 지향적 상태나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과 결부되지 않은 도덕 행위자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여기서도 먼저 적절한 “추상화의 수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우리의 일상적 직관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인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행위자 개념이나 그것에 연루된 책임 개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서구 근대 휴머니즘(인간주의)이라는 특정 시대의 유산이며, 그러한 정의 자체가 이미 이런 행위자 개념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한 맥락에 맞도록 채택된 특정 LoA에 의해 ‘매개변수화(parameterised)’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추상화는 정확한 정의 뒤에 ‘숨겨진 매개변수’로 작용하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각 정의항(definiens)은 암묵적

34) 위의 책, p.133

LoA에 의해 미리 형식화 되어 있으며(preformatted), 말하자면, 적절한 정의를 허용하기 위해 안정화되어 있다. 어떤 x 도 칸트적인 '물-그-자체'로서 절대적으로(즉, LoA와 독립적으로) y 로 정의되거나 식별되는 것이 아니며, 유클리드 기하학, 양자 물리학, 상식적 지각의 영역에서 든 언제나 주어진 LoA의 함수로서 맥락적으로 정의되거나 식별된다. 특정의 LoA가 충분히 일반적이고, 중요하며, 지배적이거나, 사실상 그것이 피정의항(definiendum)을 구성하는 바로 그 틀이 될 때, 그것은 사용자에게 '투명(transplant)'해지며, 우리는 일종의 개념적 진공 상태에서 x 가 적절한 정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즐거운 인상을 갖게 된다.³⁵⁾

말하자면, 인격성을 전제한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향적 상태나 책임의 귀속 가능성에 입각한 도덕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사실은 특정한 LoA를 채택한 결과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친숙하고 지배적이기에, 우리는 마치 그에 따른 이해가 어떤 LoA도 결부되지 않은 독립적인 무엇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플로리디와 샌더스는 도덕 행위자 집합의 확장을 위하여, 먼저 행위자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LoA로서 상호작용성(interactive), 자율성(autonomous), 적응성(adaptable)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³⁶⁾ 첫 번째 상호작용성의 조건은, 어떤 것이 행위자로 인정되려면 행위자와 그 환경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인 자율성은 행위자가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면서, 스스로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즉, 이는 외부적인 자극이 없이 스스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이행(transition)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잡성(최소한 둘 이상의 상태)과 더불어 환경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세 번째 적응성은 행위자가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행 규칙을 변화시킬

35) 위의 책, p.139.

36) Luciano Floridi and J. W. Sanders, "On the Morality of Artificial Agents", *Minds and Machine*, 14, 2004. pp.357-8.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특정의 주어진 LoA에서 평가할 때, 행위자는 그것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동작 모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플로리디는 행위자에 대한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도덕 행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정의를 제시한다.

어떤 행동은 도덕적 선이나 악을 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qualifiable)고 말해진다. 어떤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도덕적 행위자라고 말해진다.³⁷⁾

즉, 도덕 행위자는 상호작용적이고, 자율적이며, 적응적인, 도덕적이라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이(transition) 시스템이다. 여기서 전이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전이 시스템은 상태가 변화하는 시스템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앞서 플로리디의 시도가 지향적 상태나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과 결부되지 않은 도덕 행위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의 제안은 도덕적 행위자성이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할 능력”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존재자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이 도덕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자성을 가진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정이 곧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공지능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인공지능에게 도덕 행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인간과 똑같은 정도의 행위자임을 인정한다는 말도 아니다. 플로리디의 정의는 지향적 상태나 책임의 능력과 개념적으로 분리된 행위자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결코 도덕이나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의 개념이 쓸모

37) 위의 글. p.364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덕의 모든 논의가 “책임” 논의로 환원 혹은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책임 개념을 도덕 행위자 개념과 분리함으로써, 도덕에서 책임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더욱 풍부한 도덕 논의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여기서 관건은 오늘날의 도덕적 상황에서 어떤 LoA가 더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플로리디의 제안은 도덕 행위자나 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지금의 기술적, 도덕적 조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적 현상들을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행위자란 개념은 불가피하게 의도나 의식과 같은 심성상태의 존재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모종의 인간중심주의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책임’이라는 개념적 어휘와 그와 연관된 용어 전체가 인간중심주의에 완전히 젖어 있다. [...] 인간중심주의는 그러한 어휘가 ... 심리적, 교육적 필요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된다. 우리는 행동의 목적과 더 나은 삶 그리고 내세를 고려하여 칭찬하고 비난한다.³⁸⁾

그런데 오늘날 도덕적 선이나 악을 유발하는 행위의 원천은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인간 주체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비단 개인으로서의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존재, 국가 그리고 여러 인간이나 기술이 결합한 기업이나 국제단체와 같은 복수행위자시스템(MAS) 등이 포함된다. 도덕적 선이나 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도 이러한 여러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하기에, 그 결과를 하나의 중심적이고 단일한 자율적인 행위의 원천으로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책임이나 개선의 의무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 이른바 플로리디가 “분산된 도덕

38) L.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p.150.

(distributed morality)”이라고 이름 붙인 상황이다. 플로리디의 의도는 이러한 도덕 현상을 적절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덕 행위자의 집합에 인공적 행위자를 포함시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도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향적 태도나 자유의지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들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간주하고 도덕적 현상의 분석에서 중요한 한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이는 오늘날의 복잡한 도덕 현상 속에서 인공적인 행위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그 행위자성에 걸맞은 도덕적 평가를 가능하도록 만든다.

플로리디는 이런 맥락에서 책임과 책무성(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구분한다. 어떤 것이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결과에 대해 설명책임이 있는 행위의 원천임을 식별하는(identification) 일이다. 그리고 책임을 귀속시키는 일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렇게 파악된 행위의 원천이 얼마나 도덕적 책임이 있는지를(즉 칭찬 혹은 비난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규제적인(prescriptively) 평가이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자를 책임의 주체로 정의하는 것은 이 두 차원을 동일시하면서 모든 규제(규범)적 담론을 책임의 분석으로 환원하는 오류이다.

책임 할당과 무관하면서도 도덕적 행위자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는 규범적 담론의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는 자녀가 아직 책임을 지는 행위자가 되지 않은 나이에도,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도덕적 평가와 관련된 실천에 일반적으로 관여하며, 이는 완벽하게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도덕적 행위자로서 도덕적 행위의 도덕적 원천으로 자녀를 식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아직 (책임을 따지는) 도덕적 평가 과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³⁹⁾

39) 위의 책, p.151.

여기서 말하는 바는, 도덕적인 행위 및 그 행위의 원천으로 어떤 행위를 식별하는 일과, 그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평가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책임의 분석과 배분이 대부분 규범적 측면에서 칭찬할 만한지 비난할 만한지에 대한 평가, 즉 칭찬과 비난이 보상과 처벌로 이어지는 귀속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일은 그러한 책임의 귀속이나 교화의 문제와 분리하여 일종의 설명책임의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인공적인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설명책임을 엄격한 의미의 책임 개념과 구분하기 위하여 책무성이라 불러보자. 이러한 책무성은 인간 행위자의 처벌에서처럼 행위의 직접적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묻는 책임이라기보다, 어떤 존재가 가진 행위 능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폭넓은 범위에 걸쳐 부과되는 예방적 의무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책무성은 어떤 존재의 행위가 가질 도덕적 파장이나 결과에 대한 최선의 정보에 기반하여 그 대상이 가능한 최선의 규범적 행동을 하도록 조치할 예방적 의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담지자는 반드시 인격적 존재로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존재들에게도 그것들의 행위 능력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그러한 책무성 혹은 설명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도덕적 귀결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의 원천이 더 이상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대상의 설계자나 제작자 혹은 사용자에게 이러한 책무성에 해당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공산품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의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준수를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Ⅶ. 호모포이에티쿠스

이러한 전환은 윤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기존의 윤리학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행위자 중심의 사후적인 처벌과 보상의 윤리학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자의 보편적 설명책임과 그에 입각한 사전적인 예방적 점검의 윤리학이다.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간이 지구의 생태환경을 급격하게 뒤바꾸어 놓고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지질시대로서의 인류세(anthropocene)가 논의되는 시기이다. 과학기술이 현재와 같은 발전 추세를 지속할수록 인간의 힘과 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고, 그 가능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새롭게 상상할 것을 요구한다.

윤리는 단지 주어진 세계를 도덕적으로 잘 다루는 문제만이 아니다. 윤리는 또한 세계를 구성하고, 그 본성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 발전을 형성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선제적(사전 예방적; proactive) 접근 방식은 행위자를 세계의 소유자, 게임 디자이너 또는 심판, 도덕적 선과 악의 생산자, 공급자 또는 크리에이터로 취급한다.⁴⁰⁾

선제적/예방적 접근에 대조되는 것은, 윤리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인 반응(reactive)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행위자를 “세계 사용자, 게임플레이어, 도덕적 선과 악의 소비자, 브라우저, 미리 설정되어 있는 조건, 시나리오 및 선택에 반응하는 고객”으로 취급한다. 이에 반하여, 선제적 접근은 예방의학과 유사하게 예상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감

40) 위의 책, p.162.

있게 행동을 계획하고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플로리디의 정보윤리가 갖는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 바로 “호모 포이에티쿠스(homo poieticus)”라는 새로운 인간상의 이념이다. 호모 포이에티쿠스는 플로리디의 인식론적 구성주의의 인식 주체에 대응하는, 실천의 영역에서의 상대역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의 역할을 전체 인포스피어에 대해 에코포이에틱(ecopoietic)한 책임을 지고 있는 호모포이에티쿠스로 규정한다.

인류는 분명히 매우 특별한 도덕적 행위자이다. 데미우르고스처럼, 인류는 인포스피어에 대한 생태학적 책임이 있다. ‘에코포이에시스’라는 용어는 피동자 또는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한 도덕적 정보에 입각한 환경의 구성을 의미한다 [...]. 인류가 행위자로서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수록, 인류는 자신의 본성과 습관의 발전뿐 아니라 전체 인포스피어를 포함하여 끊임없이 확장되는 각 영향력 영역의 안녕과 번영을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커진다. 개인의 덕 윤리에서 글로벌 가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현재와 미래의 주민 포함)에 대한 인류의 책임을 단순히 선량한 사용자나 소비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계몽된 창조자, 관리인 또는 감독자로서 인식하는 생태주의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IE는 세상의 ‘사용자’뿐 아니라 세상의 창조와 안녕에 ‘신성한’ 책임이 있는 생산자 또는 데미우르고스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이다. 그것은 존재의 전체 영역, 즉 전체 인포스피어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조적 관리자(stewardship)의 윤리이다.⁴¹⁾

플로리디는 정보적 관점을 통하여 인간중심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의 극복하고, 존재 중심, 피동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도덕적 주체의 집합을 보편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역할의 축소나 전치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건설자(구성자), 세계의 관리자로서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의 강조로 이어진다. 인포스피어의 한 부분인 인간은 도덕적으로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짐에 따라(informed) 그 힘도 증

41) 위의 책, p.168.

가하며 전체를 향한 그 책임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제 호모 포이에 티쿠스인 인간은 인포스피어에 속하는 실재(reality)를 보호하고 번성하도록 관리하는 데미우르고스이다.

여기서 플로리디는 정보윤리의 성격이 “생태학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를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인포스피어라는 생태적 환경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 관계적인 방식으로 다름을 의미한다. 물론 인포스피어는 더 이상 자연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술적이거나 인공적인 존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생태계이다. 생태적 접근으로서의 정보 윤리는 정보의 전체 사이클(생성, 정교화, 배포, 저장, 보호, 파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덕적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대상(주체)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고, 인포스피어의 일원으로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변화, 행동 및 상호작용을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정보적으로 분석한다.

피동자 또는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한 도덕적 정보에 입각한 환경의 구성을 의미하는 “에코포이에시스”의 개념은 인포스피어의 공간이 그냥 주어지거나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공간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나 해킹과 같은 정보적 일탈,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과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알고리즘 의존도의 증가에 따른 인간 자율성의 축소와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정보와 통신 기술, 즉 데이터의 기록, 전송, 처리 기술과 연관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미래 인포스피어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포스피어의 구축과 관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는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개입을 통해 직조되기 때문이다.

VIII. 간단한 결어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윤리를 중심으로 플로리디의 정보철학을 소개하면서, 존재중심주의,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 행위자 개념의 확장 등에 대한 플로리디의 주장 속에 포스트휴머니즘 담론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여러 접점이 있음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각각의 주장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이나 비판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하여 그런 작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논의가 포스트휴머니즘의 담론을 풍성히 하는 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란다. 앞서 지적했듯이, 포스트휴머니즘은 하나의 통일된 교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있는 근대의 휴머니즘이나 인간중심주의의 폐해를 비판하고, 다양한 이분법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해석의 관점이나 이해의 태도에 가깝다. 이론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여전히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소개된 플로리디의 철학이 인간중심주의나 이원론의 극복과 관련하여 그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매즐리시, 브루스, (김희봉 옮김), 『네번째 불연속: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사이언스북스, 2001.
- 브라이도티, 로지,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 _____, (김재희, 송은주 역), 『포스트휴먼 지식』, 아카넷, 2022.
-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2014.
- 신상규, 「포스트휴먼의 조건과 인간-기계의 공존」, 문학지 『숲』 제8호, 2019.
- 신상규, 「포스트휴먼 담론과 SF의 포스트휴먼 서사」, 교양교육과 시민, 4호, 2021.7
-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아카넷, 2020.
- 칸트, 임마누엘, (이원봉 역),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2.
- 클락, 앤디, (신상규 역) 『내추럴-본 사이보그 마음, 기술, 그리고 인간 지능의 미래』, 아카넷, 2015.
- 페란도, 프란체스카, (이지선 역),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아카넷, 2021.
- 페페렐, 로버트, (이선주 역) 『포스트휴먼의 조건 - 뇌를 넘어선 의식』, 아카넷, 2017.
- 플로리디, 루치아노, (석기용 역), 『정보철학 입문』, 필로소픽, 2022 [*Inform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Allo, P., ed. *Putting Information First: Luciano Floridi and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Wiley-Blackwell, 2010.
- Demir, Hilmi., (eds.) *Luciano Floridi's Philosophy of Technology: Critical Reflections*, Springer, 2012.
- Durante, M., *Ethics, Law and the Politics of Information: A Guide to the Philosophy of Luciano Floridi*, Springer, 2017.
- Floridi, L., "What is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Metaphilosophy*, Vol. 33, Nos. 1/2, 2002.
- _____, "Open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Metaphilosophy*, Vol. 35, No. 4, 2004.
- _____, "A Look into the Future Impact of ICT on Our Lives", *The Information Society*, 23 (1), 2007, pp.59-64.

- _____, “Information Ethics: Its Nature and Scope”, in Jerome Van Den Hoven and John Weckert, (e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 Press, 2008.
- _____,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_____,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_____,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_____, *The Logic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Floridi, L., and J. W. Sanders, “On the Morality of Artificial Agents”, *Minds and Machine*, 14, 2004, pp.349-379.
- Herbrechter, Stefan, *Posthumanism: A Critical Analysis*, Bloomsbury Publishing, 2013.
- Miah, A. “A Critical History of Posthumanism” in *Medical Enhancement and Posthumanity*, Springer, 2008.
- Smart, Alan and Josephine Smart, *Posthumanism: Anthropological Insight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

Abstract

Floridi's Philosophy of Information and Posthumanism

Shin, Sangkyu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and elucidate useful conceptual tools in Floridi's philosophy of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posthumanist discourse, especially in information ethics. Floridi is not a philosopher who claims to be posthumanist himself.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scussions in his philosophy of information that provide important insights into posthumanist discourse. Posthumanism promotes a post-anthropocentric understanding of humans and the world by dissolving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binary divisions such as mind/body, life/machine, human/non-human, and artificial/natural. This paper argues that his information ethics is posthumanist in its elucidation of key concepts such as infosphere and inforg, its ontocentric and patient-oriented approach to ethics, and its postanthropocentric analysis of the concept of the agent.

Keywords: infosphere, inforg, ontocentrism, patient-oriented ethics, artificial moral agent.

논문 투고일: 2023년 04월 02일
심사 완료일: 2023년 04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4월 23일